

광주에 부는 ‘비건 바람’



광주시 남구에 있는 한 채식부페를 찾은 시민들이 비건식을 접시에 옮겨 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환경·동물보호 가치소비” 비건 식당·카페 4년새 10→122곳 급증
시민 참여 광주비건탐식단 ‘비건지도’ 제작... ‘비건 옵션’ 주문 가능

광주에도 ‘비건’ (Vegan) 바람이 불고 있다. ‘비건 불모지’ 광주에서 시민참여로 비건지도가 제작되고 호응이 이어지면서 4년 전 10곳에 그쳤던 비건식이 가능한 식당과 카페가 122곳으로 늘었다. 환경, 동물보호를 내세운 가치소비와 식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시민단체 ‘광주비건탐식단’ (대표 박해정)에 따르면 광주에서 비건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은 122곳 (동구 39곳·서구 13곳·북구 30곳·남구 20곳·광산구 16곳)에 달한다.

탐식단은 이를 바탕으로 음식점 위치, 영업시간, 비건 메뉴 종류를 수록한 ‘광주비건지도’를 제작했다.

2023년 지도를 처음 제작한 이후 2년 만에 대폭 업데이트해야 할 정도로 비건 음식점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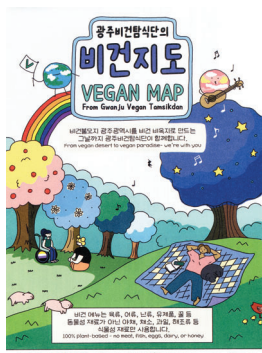
대부분 전문 비건 음식점이 아닌 요정 시 비건식으로 변해 주는 ‘비건 옵션’ 메뉴를 판매하는 곳으로 지점별 요청 내용과 방식이 함께 안내돼 있다.

‘광주비건탐식단’은 2021년 4월부터 비건 음식점을 발굴하고 온라인 지도에 표시해 공유하는 ‘온라인 맵핑’을 해왔다.

박해정 대표는 “처음에는 비건으로 외식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어보라며 기획진 4명이 모여서 (광주비건탐식단)을 해보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라는 말을 듣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더해지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박 대표는 “시민 제보도 많이 들어왔다. 2023년부터는 맵핑 함께할 사람을 뽑았는데 그중에 자신 일처럼 해주시는 분도 생겼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계속)하지 않았다 싶다”라고 말했다.

지도 제작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박 대표는 “지도는 온라인 맵핑과 달리 우연히 접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비건을 잘 모르는 사람도 보기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2년 전 배포해 보니 효과가 있었다. 음식점에 부착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가고. 그래서 다시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비건은 식문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비건을 하는 이유에는 기후 위기도 있고 동물권 관점도 있고 다양한 의제가 연결돼 있다”라며 “비건이 사람들을 다양한 의제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동시에 비건탐식단도 ‘비건 식당 찾기’에 머무르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이기명씨는 지난해 비건탐식단 활동에 참여하며 비건의 필요성과 연대감을 느꼈다.

이씨는 “(식당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광주에

? 비건(vegan)
고기·우유·달걀 등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적극적인 개념의 채식주의자를 뜻한다. 동물성 소재를 쓴 의류를 입지 않거나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으로 확산하고 있다.

비건하는 분들이 밥을 먹을 때가 없더라”라며 “제로웨이스트 샵도 대중화가 안 돼 있다 보니 운영하는 데 힘들어 있다. 환경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지도에 소개된 음식점 사장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구에서 ‘곰이네집밥’을 운영하는 이순희씨는 광주일보 취재진이 ‘순두부찌개를 비건 옵션으로 주문할 수 있겠냐’고 묻자 “비건이시래”라며 능숙하게 주방에 지시를 내렸다.

이씨는 “우리는 비건 단골 손님도 있다.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어 좋다”며 웃어 보였다.

서구 ‘김밥나들이’ 대표 송창숙씨는 “채식하시는 분이 오시면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다. 들어가는 게 적어서 민망하긴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동구 ‘제일반점’은 비건을 위한 메뉴까지 개발했다.

제일반점 대표 김준태씨는 “간판새우는 비건으로 요청하시면 따로 구매한 인공육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면서 “각자 식생활은 다 다를 수 있지 않다. (비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설혜경 기자 sir@kwangju.co.kr
/안재현 인턴 기자 screamsoloo@gmail.com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폐격’

도의회, 규약안 심사 보이콧... 연내 출범 차질 우려

전남도의회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전남도의회가 집행부와 소통 부족 등을 내세워 사실상 심사를 보이콧하자,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규약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 394회 임시회 의결을 목표로 했지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16일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소관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견이 없는 상태로 통과시킨 것과 상반된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규약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의회 기행위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의 부족한 소통을 심사 보류의 배경으로 꼽았다. A의원은 “광역연합에 대한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 내용도 모르고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B의원은 “행정예고도 단축하고 그 저 빠르게 출범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역연합 의회의 의원 숫자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같이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역연합이 양 시도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광주·전남의 공동사무를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의 세 축으로 묶고, 주력산업 연계 육성, 첨단 바이오와 조광역 R&D 혁신, 도로·철도·대중교통을 아우르는 교통망 구축과 광역철도 건설·운영,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문화 지원, 조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10개 과제를 명시했다.

광역연합 규약안은 연합의 설립 목적, 구성과 운영 구조, 재정 체계가 뼈대로 구성됐다. 시·도민 체감도가 높은 공동사무를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의 세 축으로 묶고, 주력산업 연계 육성, 첨단 바이오와 조광역 R&D 혁신, 도로·철도·대중교통을 아우르는 교통망 구축과 광역철도 건설·운영,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문화 지원, 조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10개 과제를 명시했다.

규약 의결 뒤에는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가 이어지며, 11월 정례회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등 필수 조례를 상정·의결해야 올해 연말 출범이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지적인 설명 부족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다”며 “이런 회기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만나 상세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용범 대통령실 실장·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통상협상 마무리 위해 백악관 찾는다

실무협상 막바지 신호

한미 통상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진 대미협상단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찾는다.

실무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 도착 즉시 OMB에서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G20·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체류 중 합류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이다.

OMB는 대통령 예산과 행정부 정책 집행을 총괄·감독하는 기관으로, 대미 투자펀드와 연계된 한미 관세협상의 행정 문구를 최종 조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분위기와 달리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 투자 자원 조달·구성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리의 외환보유액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 계좌를 통해 대미 투자액을 집행하는 아이디어 등도 거론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통화스와프’와 동일한 개념 아니냐는 의견이다.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국가부채로 대미 투자액을 조달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때문에 결국은 미국 측이 어느 선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청년들은 왜 캄보디아로 갔나 ▶6면

복스 - '냉면의 역사' '우주를 짓다' ▶14·15면

글로벌 여행 성지 전남 - 사찰에서 명상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중고차도 메르세데스-벤츠답게,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 온라인 계약금 결제
-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전시장 보유
- 🔄 Trade-in 프로그램
-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 1년 / 20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